



교사 학생 학부모를 대립시키는 교과부 교권보호대책 항의 학부모 기자회견-2012년 11월 1일(목), 교육과학기술부(정부중앙청사) 정문 앞



11월 3일 학생의 날 맞이 인권친화적 학교를 만드는 법률안 검토 토론회  
'교과부 교권보호대책 교육을 살리나 죽이나'-2012년 11월 1일(목), 이룸센터



'서울형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발족식-2012년 11월 1일(목), 흥사단 강당

학부모 전문  
강사 양성을  
위한  
강의를  
풍요롭게  
하는 법  
연수 안내

[참교육학부모회 학부모교육센터 추진 시범사업]

학부모 전문 강사 양성을 위한 연수

## ‘강의를 풍요롭게 하는 법’

“내가 강의를 잘 했을까? 실수는 안 했을까? 이해했을까? 중요한 얘기를 못했는데, 재미없거나 졸리지는 않았을까? 기억에 남을까?”

강의를 마치면 강사도 수강생도 이런저런 강의평가를 하게 마련입니다. 우리 참교육학부모회는 학부모와 나눌 수 있는 교육내용과 콘텐츠가 풍부합니다.

하지만 이 좋은 내용을 잘 전달하고 있는지, 내 강의를 보완할 건 없는지 한번쯤 고민해 보셨지요? 어떻게 하면 강의를 잘 할 수 있는지 강의기법을 배우고 싶은 갈증도 있으시죠?

그래서 마련했습니다.

‘강의를 풍요롭게 하는 법’

- 일 시 : 2012년 11월 9일(금)~10일(토)
- 장 소 : 대전 유성유스호스텔 (042-822-9591~2)
- 참 가 자 : 강의 경험 회원, 강의 경험은 없지만 강사교육을 받고싶은 회원
- 참 가 비 : 회원 2만 5천원, 비회원 5만원 (선착순 25명)
- 신청요건 : 지부·지회 추천서와 수강희망자의 프로필 제출(첨부자료 참고)
- 신청방법 : 본부 메일 hakbuno@hanmail.net / 전화 02-393-8900
- 입금계좌 : 신한은행 100-024-869800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 접 수 : 2012년 10월 24일 ~ 11월 5일
- 준 비 물 : PPT 교재작성을 위한 노트북, 자신의 프로필 파일

[일정표]

<강사> 김성학 - 강의를 풍요롭게 하는 법, 저자.  
중앙선관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시민단체, 기업, 대학 등에서 소통을 위한 '강종별' 강의

첫째 날 (11.9. 금)	
시 간	프로그램 / 내용
12:00 ~ 13:00	집수
13:00 ~ 13:30	인사나누기 강의를 여는 기법
13:30 ~ 14:30	- 오프닝, Magic, 키워드 찾기 게임 - 지나가겠습니다 - 모서리게임
14:30 ~ 18:00	강의를 풍요롭게 하는 기법 - 학습 촉진, 참여 유도 및 몰입 Skill
18:00 ~ 19:00	저녁식사
19:00 ~ 21:00	메시지 디자인 기초 - 보기 좋은 PPT 디자인 4가지 방법
21:00 ~ 23:00	참가자 강사 제법 나누기 - 정 나누기
23:00 ~	취침
둘째 날 (11.10. 토)	
시 간	프로그램 / 내용
07:00 ~ 08:00	기상
08:00 ~ 09:00	아침식사
09:00 ~ 10:00	분위기 활성화와 주위질중 Skill - 다양한 Sopt 기법 - 강의 잘하는 비법 - B2 법칙
10:00 ~ 11:00	교안 및 프로그램, 그리고 제안서 작성 - 교안 작성 작성 - 프로그램 및 제안서 작성법 강의를 마무리 하는 기법
11:00 ~ 12:00	- 나만의 노하우 공유 - 동물과 나 - 감동적 결말장치 : 영상으로 배우는 효율적인 강의 전략
12:00 ~ 13:00	점심식사 후 휴식으로



02\_393\_8900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교육공공성을 찾아서 36 서울시립청소년일시쉼터 '누리'

# “가출 해보셨어요?” 거리·집없는 가출청소년에게 관심을!!



한해 평균 22만명의 청소년이 가정이 안식처 보금자리가 아니어서, 부모이혼으로 인한 충격, 재혼으로 인한 갈등, 학대 등의 사유로 집을 뛰쳐나

온다. 또 적지 않는 청소년들이 학교에서의 부적응, 또래집단의 부정적 영향으로 집을 나오며, 최근 찾아온 경제적 불황 때문에 생활고 및 빈곤으로 인한 부모갈등 심화 등으로 가출이 증가하고 저연령 만성화 되어 가고 있다. 문제는 청소년가출이 단순히 가정이나 학교를 떠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각종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된 채 절도와 성폭행 등 비행과 범죄로 그 연결고리가 형성된다는 점이다. 숙식을 해결하기 위해 생계형 범죄를 저지르며 성인들의 성매매에 이용당하기도 한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가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다행스럽게도 정부는 1992년 YMCA 청소년쉼터를 시범설치하고 1998년엔 광역시로 확대·설치하였다. 2012년 10월 현재 총 91개 청소년쉼터가 설치되어 가출청소년 보호, 건강지원, 자립지원을 통한 가정복귀, 사회통합을 지원하고 있다.

이들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서는 가정에서 받지 못한 따뜻한 관심, 돌봄, 국가와 사회적 지원이 매우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도 가출청소년을 문제청소년으로 보는 시각이 팽배되어 있어 늘 안타까운 마음이다. 1999년부터 지금까지 아이들을 만나면서 대부분의 가출청소년은 집을 나온 것이 아니라 ‘내몰린’ 혹은 ‘탈출한’ 청소년이었기 때문이다. 2010년 전국가출청소년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에 응한 가출청소년 중 69%가 편부 혹은 편모, 혹은 계부모, 조부모, 친구, 혼자 사는 청소년들이었다. 안전한 보금자리가 없는 그 자체가 위기인데 이들 대부분은 빈곤 가정 청소년이며, 가정폭력·학대 피해자이고, 친족 성폭력·성추행 피해자인 경우도 적지 않다. 이들에게 개입하기 위해서는 “가출청소년은 위기청소년이고 피해자라고 보는 시각이 우선 필요하다.” (Rutter)

## ○ 청소년쉼터 대상자 특성

- 가정폭력, 가정해체 등으로 가정복귀가 불가능한 청소년
- 사회적 빈곤층에 해당하는 청소년
- 가정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 가출 등으로 사회적 범죄에 이용당하거나 피해를 당한 청소년

- 일시적인 부모와의 갈등으로 가출 후, 가정으로 복귀를 준비하는 청소년
- 보호받을 가정이 없어 검정고시, 자격증 취득 등 자립을 꿈꾸는 청소년
- 기타 위기상황에 의해 사회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 등

## ○ 청소년쉼터의 목적, 역할, 성과와 의미

가출청소년을 가출원인, 특성별, 욕구별로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곳이 ‘청소년쉼터’다. 그 설립 및 지원 근거로는 청소년기본법 제 50조(청소년의 가출 및 비행 예방), 청소년복지지원법 제 14조(청소년쉼터의 설치, 운영)를 들 수 있다. 청소년쉼터는 생활지원·상담·보호 서비스 제공을 통해 진정한 가정·사회 복귀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가출청소년은 많은 어려움과 위기상황을 맞게 된다. 절박한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우려 상황에 대해 안전판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며칠 동안 무료로 숙식을 제공받으며 사회복지사와 상담할 수 있는 곳으로 가출 청소년이 의식주 때문에 비행을 하거나 유흥업소에 취업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해주며 해방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가출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 ○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소개

2001년엔 심각한 사회문제를 초래하는 청소년 가출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전국의 청소년쉼터가 연대하여 가출문제 관련 정보와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청소년 가출문제 해결을 위해 효과적으로 접근함으로써 가출청소년 문제에 대한 통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가 발족했다.

## ○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중점사업

- 각종 연구사업을 통한 가출 관련 정보의 개발 및 공유
- 전국 회원 쉼터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정책수립 시 제반 이슈를 제안
- 회원쉼터의 역량강화를 위한 매뉴얼 작성 및 보급
- 회원쉼터의 실무자 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 실시(유형, 직급, 주제별 교육)
-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도출
- 전국 회원 쉼터를 대변하여 사회적 자원을 모으고, 재분배하는 업무
- 회원 쉼터의 유대와 협력, 운영에 대한 전반적 지원
- 회원 쉼터의 운영실적 데이터 관리 및 실적보고(행정지원시스템 운영)
- 발전적인 가출청소년 관련 정책 형성
- 총회, 이사회 등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준비 및 진행
- 가출청소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체험, 교육 등) 연계 및 공모 진행
- 외부 기관 및 단체들과의 협력과 연계를 통한 쉼

## 터와 협의회의 기능 강화

- 회원 쉼터에 대한 대외 공신력 향상 도모
- 쉼터 지원(후원)사업 (물품지원, 각종 장학금지원, 연합캠프, 문화활동 등)
- 쉼터의 주간” 행사를 주관하고 회원 쉼터들과 함께 추진하는 업무 등
- 가출청소년과 청소년쉼터 홍보 사업의 추진과 효율 증진 방안 모색
- 언론을 통한 주요 이슈 노출과 개별 쉼터의 언론 연계를 위한 사무

## ○ 마치는 글

정부에서 가출청소년의 보호와 회복, 자립 지원을 위해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있어 감사하다. 그러나 연평균 22만명의 가출청소년들 중 많은 청소년이 사회적 무관심, 인식부족으로 옥상, 계단, 공터 등에서 노숙하고 있으며, 노동현장에서 미성년자, 또는 낮은 학력 등의 이유로 저임금을 받고 3D업종에 종사하며, 근로현장에서 성폭행, 성추행 당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일부 청소년들은 절도, 성매매, 폭력 가해 등 문제를 일으킨다. 그러나 이들은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보호가 필요한 미성년, 청소년이므로 이들이 성년이 되기 전 우리 사회, 성인들은 이들 역시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며 존중 받고 보호받아야 할 소중한 인격체라는 사실을 받아드려 이들을 열린 마음, 따뜻한 관심으로 대해주었으면 좋겠다. 또한 이들이 상처를 딛고 일어서서 일반 청소년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경쟁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예산 확대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사)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는 민간단체여서 정부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지 않고 있다. 회원쉼터 회비가 주수입원이어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 및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 때문에 가출청소년을 위한 제반 환경 마련, 전국 청소년쉼터 대표자 및 실무자 교육, 전국적으로 홍보사업을 전개하는 등 필요사업 전개에 어려움이 많다. 전국 가출청소년 및 청소년쉼터를 보다 효과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심 있는 이들의 후원이 또한 따랐으면 한다.

김은영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회장)

# ‘개입’이란? 가출청소년의 위기상황에 대한 접근 및 해결을 위한 상담가 및 사회복지사의 활동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교장길 29-2번지 (평동 20-9)

홈페이지 : www.jikimi.or.kr

이메일 : yoythshelter@hanmail.net

전화 : 02-403-9171, 6403-9171

후원계좌 : 농협 610-01-007937 쉼터협의회

우리은행 1005-201-004026 쉼터협의회



# 잠시 길을 잃은 아이들이 머물렀다 가는 곳, 서울특별시립 청소년 일시쉼터

올해 19살이 된 이모군은 17살 때 고등학교를 자퇴하였다. 아버지는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고 어머니는 안 계셨기에 이모군 역시 방향을 하게 되었고, ‘이곳’을 찾게 되었다. 어느 정도의 자립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이모군은 ‘이곳’에서 연계해준 직업프로그램에 참가하며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되었다. 이 밖에도 많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도움을 받았고, 지금도 많은 청소년들이 지속적인 도움을 받고 있는 ‘이곳’, 이곳은 바로 ‘서울특별시립 청소년 일시쉼터’이다.

서울역 공항철도 4번 출구로 나가 길 건너편의 셋길을 따라 15분 정도 걸어 올라가면 ‘서울특별시립 청소년 일시쉼터’를 만날 수 있다. 생각보다 외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 이곳에 한 달 평균 약 110명의 청소년들이 찾아온다. 작년에만 약 1540명의 청소년들이 이용하였다. 주로 9세에서 24세의 위기 청소년과 위기가능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고, 운영시간은 평일은 아침 9시부터 밤 9시, 토요일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이다. 운영시간 상 가출청소년들이 일시쉼터에서 밤늦게까지 남아 있지는 못하므로 상담을 통해 최대한 집과 학교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일시쉼터의 일차적 목표이다.

하지만 가정폭력과 같은 이유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청소년들의 경우 일정기간동안 머무르며 지낼 수 있는 단기 쉼터나 중장기 쉼터로 연결해준다. 일시쉼터는 그 밖에도 식사, 샤워, 세탁, 응급의료와 같은 긴급생활을 지원해주고, 가출, 가정폭력, 성매매, 성폭력 등 위협에 처한 청소년들이 지닌 많은 고민들을 상담해준다. 그리고 정신건강증진센터, 직업훈련, 대안학교 등과 같은 기관을 연계해주는 역할도 한다. 일시쉼터에는 PC, TV, 보드게임, 독서, 편지 등도 구비되어 있어서 간단한 문화활동도 가능하다. 진로검사, 성격검사, 그림검사 등의 심리검사도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일시쉼터에 직접 찾아오지 않더라도 일시쉼터 선생님들이 청소년들을 직접 찾아가는 ‘서울시립 청소년 이동 쉼터’와 ‘서울시립 청소년 일시쉼터 아웃리치’도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립 청소년 이동 쉼터’는 ‘여기는 우리청소년들의 별난 세상, 여우별’이라는 커다란 버스를 청소년 밀집지역에 끌고 나가 가출청소년들에게 식사와 긴급 생필품을 지원해준다. 그 밖에도 버스 안에는 상담할 수 있는 공간과 간단한 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서울시립 청소년 일시쉼터 아웃리치’는

선생님들이 직접 청소년들을 찾아 나선다는 것은 ‘이동쉼터’와 비슷하지만 더 늦은 새벽까지 운영이 되고, 연신내역, 노원역, 성신여대입구 역 근처 등을 직접 순회하며 이루어진다.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발굴하여 그들에게 긴급생활지원과 함께 상담을 통해 쉼터와 기관으로 연계해 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이 직접 찾아가는 활동들을 통해 일시쉼터에 대해 모르던 청소년들도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고, 다음번에는 쉼터로 직접 찾아오는 계기가 된다. 청소년 일시쉼터에서는 ‘누리월드’라는 인터넷 사이트도 운영하고 있다. 사이트를 통해 쉼터의 위치, 활동시간과 같은 기본정보와 쉼터의 사진들을 볼 수 있다. 상담게시판이나 메일을 통해 실시간 상담도 가능하다. 그 외에 먹을거리, 입을거리, 볼거리 등의 후원이나 일시쉼터에서 자원봉사 하기를 원할 경우에도 전화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청소년들의 귀가를 돕기 위해서 티머니카드와 같은 교통카드를 수거하고 있으므로 가정내 사용하지 않는 교통카드로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진수지 (서울YMCA 대학생 기자단 와락, 숙명여대 생명과학과)

서울시립청소년일시쉼터 ‘누리’



서울시립 청소년 이동쉼터 차량  
“여우별 : 여기는 우리들의 별난세상”



청소년 축제의 모습



## 정신적 불안으로 전국을 떠돌다가...

제나이는 12살 때 처음으로 가출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술만 드시고 어머니는 저를 낳자마자 아버지의 심한 폭력으로 인해 가출하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시고 아버지는 할머니한테까지 심한 욕설과 폭력으로 못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8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의 알콜중독과 폭력으로 이웃주민들이 SOS 긴급출동에 신청해서 아버지는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3개월 정도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그 때 고양 동지 청소년 쉼터에서 3개월간 지내면서 검정고시를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먹은대로 되지 않았고 아버지는 퇴원하자마자 다시 술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는 아무런 연고도 의지할 사람도 없어 정신적 불안으로 전국을 떠돌게 되었는데 다행히 여러 쉼터의 도움을 받아 직업도 갖고 검정고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저보다 어려운 청소년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홍우 (가명)

# 혁신학교에서 대한민국 교육의 희망을 봅니다.

## 아이들이 정말 행복해요

“너! 다른 학교로 전학 보내다!”

이 말은 혁신학교 학생이 어머니에게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입니다.

“32년 교사 생활 중 요즘처럼 행복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혁신학교를 방문하면서 어느 선생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이 좋아한다. 행복해 한다. 학교를 위해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자꾸 든다.”

혁신학교의 한 학부모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매학기 만족도를 조사하는 어느 혁신 초등학교에서는 지난 1학기 만족도 조사결과 교사 95%, 학부모 90%, 학생 90%가 만족한다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고, 어느 혁신 중학교에서도 교사에 대한 만족도가 90%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작년 10월에 독일에 가서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의 교장선생님과 인터뷰했을 때 베를린 학부모들의 교육만족도가 80%가 넘는다고 자랑하는 것을 듣고 부러워한 적이 있는데 우리 혁신학교는 대학교까지 무상이며 학생들에게 시험공부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나라의 학교보다 훨씬 높은 만족도를 얻었습니다.

## 교사들의 교육적 상상력이 마음껏 발휘됩니다

혁신학교는 무엇보다도 먼저 교사들을 일으킵니다. 교육의 수준은 결코 교사의 수준을 넘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교사가 되려면 수능 5% 안에는 들어야 합니다. 교사 수준이 높다고 자랑을 하는 핀란드에서는 상위 20% 내의 학생들이 교사를 지망한다고 하니 우리나라 교사의 수준은 가히 세계 최고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수한 인재들이 교사가 되어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나 가르치고, 교과부, 교육청, 학교장이 하라는 일이나 하고, 공문 처리하느라 바쁘니 제대로 교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사교육이 번창하고 교권은 추락하고 학교는 붕괴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혁신학교는 교사들이 학생지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적 효과가 별로 없는 전시성 행사, 대회 등을 없애고 교무행정지원사를 채용하여 교무행정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여유 있게 된 시간에는 교사들이 모여서 더 좋은 교육과정

과 수업방법 그리고 생활교육방법을 연구하고 협의하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수십 년 동안 발휘되지 못했던 교사들의 교육적 상상력이 발휘되기 시작했습니다. 멋진 교육과정이 만들어지고, 잠자던 학생들이 일어나 즐겁게 참여하는 수업이 되었으며,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 간에 신뢰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 혁신학교의 새로운 모습들

교육과정이 변했습니다. 그동안의 교육은 머릿속에 지식만을 주입하는 오체불만족 교육이었습니다. 손은 아무 것도 만들지 못하면서 시험 볼 때 필기구를 쥐는 데만 사용하였고, 다리는 마음껏 뛰며 건강한 몸과 마음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학교와 학원을 오가는 데만 사용하였으며, 온몸으로 다양한 체험을 하며 미래를 꿈꾸지도 못했습니다. 협동심과 학습흥미도는 꼴찌이고 지식 영역도 창의력과 문제해결력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런 교육과정이 삶과 밀착된 생활교육(요리, 목공, 자전거 등), 생태환경교육(경작, 사육, 숲 체험 등), 감성을 깨우며 심신을 건강하게 하는 문예체교육(연극, 오케스트라, 창의미술, 스포츠클럽 등), 참여와 협동을 통해 내면화하는 인권과 민주시민교육(학생자치와 동아리활동, 3주체협약을 통한 규정 제정 등), 창의력과 문제해결력을 기르는 수업, 일부학교에서는 계절의 변화에 따른 4학기제 운영 등 학생들의 삶이 실제로 변하고 행복해지도록 배움이 일어나는 다양하고 풍성한 교육과정으로 변했습니다.

수업도 바뀌고 생활교육도 바뀌었으며 소통과 참여의 학교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80분 블록타임을 도입하여 협동학습 토론학습 등의 수업을 넉넉하고 여유 있게 할 수 있게 되었고, 주제통합 교과통합 프로젝트 수업으로 교사들이 협력하여 더욱 알찬 수업이 되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훈육과 처벌 위주의 생활지도 방식에서 모든 당사자 간의 충분한 상호협의로 생활규정이 정해지고 학생인권과 교권을 존중하며 서로를 신뢰하는 풍토가 만들어져서 체벌이나 폭력 등의 문제도 사라졌습니다. 학생활동과 학부모활동에 대한 더욱 많은 지원 그리고 자발적인 참여기회의 확대로 민주적인 학교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노는 학교라고요? 아니요! 성적도 올랐습니다.

끝으로 혁신학교에 다니면 시험성적이 떨어질 것이라는 걱정은 기우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PISA가 핵심 평가기준으로 삼고자 한 ‘협력적 문제해결력’이 기업이 원하고 대학이 선발기준으로 삼으며 국가경쟁력을 높일 역량이 될 것입니다. 이 점에서 혁신학교가 단연 앞서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국가학업성취도평가와 모의고사에서 성적 향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금곡여고의 국가학업성취도평가 학력변화를 보면 보통 이상이 9.7% 증가했고, 기초미달은 1.2% 감소하여 학력이 신장되었습니다. 삼각산고도 모의고사 성적 변화를 보면 국어영역이 89.7→89.7(A) 97.2(B), 수학영역이 90.9→94.5(A) 94.7(B), 영어영역이 90.7→98.9(A) 95.6(B), 탐구영역이 45.8→46.1(사) 47.8(과)로 나와 학력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혁신학교는 학생, 학부모, 교사의 만족도가 모두 90% 이상인 행복한 학교입니다. 혁신학교는 행복지수 꼴찌인 대한민국 학생들과 사교육 부담으로 등골이 휘어지는 학부모들과 자괴감 속에서 교단에 서고 있는 교사들을 살리는 학교입니다. 혁신학교는 미래의 핵심역량을 제대로 길러 대한민국의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학교입니다. 혁신학교는 대한민국 교육의 희망입니다.

정리 : 강인수 (상근활동가)





#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인권이 존중되는 인권친화적 학교문화를 위하여

최근 교과부가 입법예고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생, 학부모에 의한 교원 폭행, 협박, 성희롱 및 모욕을 교권 침해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학생, 학부모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부모로서 이러한 인식에 동의할 수 없다.

일부 학생, 학부모가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사례가 있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학생, 학부모가 아무 이유 없이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교사의 부당한 대우, 권리침해, 소통부재로 인해 상호불신이 쌓이면서 비이성적인 방향으로 폭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반적으로 학부모들은 교사와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비이성적인 대응을 하기보다는 혼자 고민하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속앓이를 하는 경우가 더 많다. 교사에게 문제를 토로해 봐도 결국 변화가 없거나 더 큰 피해를 당할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또는 문제해결을 위해 해당 교사와 학교에 문제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갈등이 더 커지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해당 교사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상급기관인 학교장이나 교육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만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가 많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갈등이 계속되면 서로 물리적인 충돌이 생기고 더 나아가 소송으로 번져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기도 한다.

학부모가 학교에 찾아가 폭언 폭행을 하는 경우는 개인의 성향이나 품성의 문제도 있겠지만 권력의 불균형 상황에서 문제해결의 바람직한 방법과 통로가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구조적인 문제로 보아야한다. 그런데도 교사를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피해자로, 학부모와 학생을 가해자로 규정하는 시각은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볼 수 없도록 한다.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교권침해의 프레임에서 교육 주체간의 갈등 프레임으로 전환해야 바람직한 해결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학부모들은 교사의 부당한 대우에 대해 교장에게 호소하고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성의없이 처리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에 호소하지만 결국 그 모든

민원이 해당 교육청 담당장학사에게 전달되어 처리하도록 하기 때문에 헛수고만 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학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교사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또는 교사의 부당한 행위를 보았을 때 책임과 권한이 있는 사람이 들어주고 해결해 줄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학부모의 고충을 진지하

대로 할 수 없다.

교원 업무 정상화,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한 정부의 책무성을 명시하고 학교현장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원이 그 전문성에 기초하여 교육과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도록 교무회의를 의결기구화 하여야한다. 또한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갈등,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국가의 지원 하에 교원과 학생, 학부모 간의 합리적인 중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쟁조정기구를 두어야한다.

또한 불가피하게 법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학부모들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하는데 교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없는 변호사들이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부추겨 시간과 비용을 부담하고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교육 당사자간의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 할 수 밖에 없을 때는 교육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과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부담을 줄여줄 수 있어야한다. 교육주체간의 갈등 해결을 위한 법률지원을 교사 뿐 아니라 학부모 학생에게도 적용하여야한다.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교육당사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제도와 시스템이 마련되어야하며 교육당사자의 인권 의식도 함께 향상될수 있도록 노력하여야한다.

고유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학부모상담실장)

권력의 불균형 상황에서  
문제해결의 바람직한 방법과  
통로가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구조적인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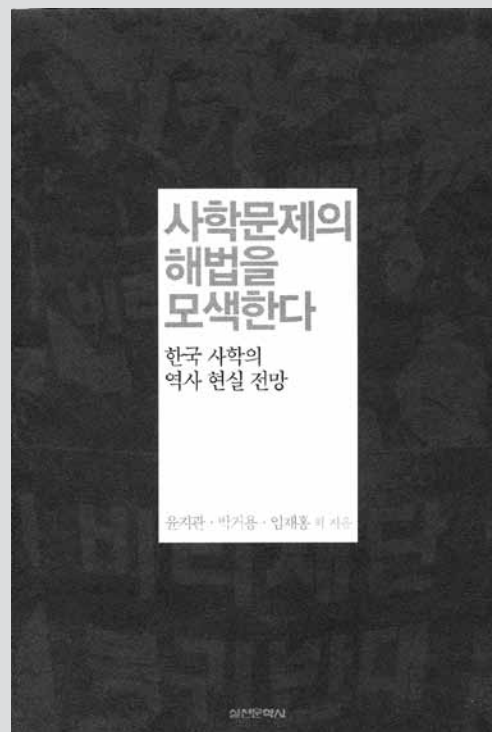
교사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학생,  
학부모가 아니라 교과부

교육주체간의 갈등 해결을 위한  
법률지원을 교사 뿐 아니라  
학부모 학생에게도 적용하여야

게 들어주고 해결해주는 곳이 없다. 학교장이나 교육청에 호소해 보아도 문제가 해결되기 보다는 더 답답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교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학생, 학부모와 교사를 분리시켜 갈등을 조장하는 교과부의 개정 법률안은 폐기 되어야하며 진정한 교사의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주체간의 갈등을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쟁조정기구를 담은 입법안이 필요하다.

교사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학생, 학부모가 아니라 교과부이다. 경쟁교육, 일제교사를 통한 서열화로 인해 교사가 교육과정 및 평가에 관한 결정권한을 가질 수 없게 되었고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과도한 행정업무로 인해 정작 교육활동을 제



## | 기획특집 | 사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 문화현상으로서의 사교육과 사회적 탈출구 찾기

〈편집자 주〉 학벌사회 안에서 우리 아이들을 키워야 하는 학부모들은 과연 어떻게 사교육문제에 적응해야 할 것인지, 그 구체적 접근법을 살펴봅니다.

## 공교육을 위협하는 사교육



사교육은 이제 거역할 수 없는 대세가 되고 말았다.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고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궁금하나 중요하지 않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서 탈출구를 찾는 게 급선무다.

	1970년	1990년	2000년	2008년
학원수	1,421개	29,000개	58,000개	70,213개
수강생수	120,000명	-	-	4,680,000명
강사수	6,000명	55,000명	-	187,000명

38년 사이에 학원 수는 무려 50배, 수강생 수는 40배 증가한 통계는 '사교육 공화국'을 실증한다. 교육이라는 공적 영역의 막중한 책임을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교육이 침투하여 이제는 오히려 공교육의 영역을 취약하게 만드는 사교육의 폐해는 특히 '선행학습'에서 극에 달하고 있다.

잠시 글로벌 마인드를 들먹인다. 아래 나라별 비교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많은 나라에 사교육은 존재한다. 공교육 시간이 길수록 성적이 높고 사교육 시간은 반대인 나라가 대부분이다. 공교육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공교육 차원에서 학업 성취가 어려운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공교육을 보완하는 사교육이 대부분인데 한국은 정말 도드라진다. 우리에게서 정상처럼 여겨지지만 글로벌 마인드를 적용하면 정말 기형적이다. 사교육도 교육이고 그래서 자신의 학업성취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하는 사교육이 왜 문제가 되느냐는 시각은 공적 영역의 교육을 개인의 수준에서 왜곡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나라	한국	일본	멕시코	터키	독일	미국	뉴질랜드	핀란드
점수 차	16	2	-1	-5	-40	-44	-45	-46

[사교육 시간이 성적에 미치는 영향] 아동·청소년의 생활패턴에 관한 국제비교연구(보건복지가족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9년)

## 문화현상으로서의 선행학습

선행학습이 대세를 장악하게 된 배경에는 입시제도가 자리 잡고 있다. 결정적인 기폭제는 특히 수학 선행학습을 한 학생들이 특목고 합격에 유리한 입시제도에 있었다. 분명 공교육 기관인 특목고를 들어가기 위해 사교육에서 선행학습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다행히 지금은 자기주도학습전형이 정착되면서 선행학습 유발요

인이 사라졌지만 잘못된 제도로 인해 뿌리를 내린 문화현상은 여전히 극성을 부리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간한 '학부모 문화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에 나오는 대목이다.

학부모문화의 주제는 '사교육 지향성', '엄마 주도성', '성적 지향성' '정보 의존성'의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사교육 지향성'은 '학교교육보다는 사교육이 더 낫다', '엄마 주도성'은 '아이들은 모른다', '성적 지향성'은 '성적에 따라서 교육활동의 지원방식이 달라진다', '정보 의존성'은 '정보의 질이 성적을 좌우한다'는 원리를 내포한다.

학부모문화란 학부모들이 자녀교육과 관련하여 갖고 있는 일상적 교육론으로서, 개인적 사회적 경험을 통하여 형성된 것이며, 이는 그들의 실제 삶의 과정에서 표출되어지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학부모문화는 학부모들이 자녀교육과 관련하여 마음에 품고 있는 자녀교육의 형식이며, 자녀교육을 지각하고 관계 짓고 해석하는 모델이다. 학부모의 교육문화는 자녀교육과 관련된 관습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자녀교육과 관련된 전체적인 생활양식이다. 따라서 학부모문화는 학부모들이 주어진 교육환경에 적응하면서 어떻게 느끼고 행동하며, 지각할 것인지의 대강을 포함하고 있다. 즉 학부모문화는 자녀교육의 과정과 행동에 관한 의미해석의 표준이다.

## 사교육 의존이

학교 수업을 무시하게 만들었고

수업 과잉, 자습 부족 상태에

우리 아이들을 빠지게 해

'자녀교육의 과정과 행동에 관한 의미해석의 표준', 바로 문화적 현상으로 자리 잡는 순간 개인적 결단으로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된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다소 거부감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문화에 위배되는 다른 선택을 하기가 극히 어려워진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선행학습은 '성적에 굴복한, 정보 사냥에 혈안이 된, 사교육을 맹신하는 학부모들이 주도하는 문화현상임이 분명하다. 특히 수학 과목의 경우 선행학습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버렸다.

## 사교육을 위한 선행학습

선행학습형 사교육은 사교육 기관의 이해관계와

잘 맞아떨어진다. 당장 시험을 보지 않는 선행진도를 나가는 것은 사교육 입장에서 면책이 가장 용이하다. 또한 학교마다 교과서와 진도가 모두 다른 상황에서 선행 진도를 나가야 다수 학생을 묶어 반 구성을 하기가 용이하다. 사교육의 존재이유인 수익에 가장 유리한 선택인데 그렇다면 학생 입장에서 선행학습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학생들은 사교육 의존이 불가피하게 학교 수업을 무시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 자신의 공부가 어려운 지경에 빠졌다는 사실을 잘 이해한다. 학교 진도와 학원 시간표는 대부분 따로 논다. 사교육에는 유리하지만 자신에게는 불리한 시간표를 가지고 공부를 한다. 말 그대로 수업 과잉, 자습 부족 상태에 대부분 빠져있다. 선행학습의 가장 큰 부작용, 역효과는 바로 학생들을 착각에 빠지도록 한다는 점이다.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과 학교수업에서 나가는 진도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도록,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주범이 바로 선행학습이다.

## 선행학습에 대한 사회적 탈출구 찾기

결론은 사교육의 선행 진도가 아니라 학교 진도에 대한 신뢰 회복임이 분명하다. 학교 진도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면 굳이 사교육에서 선행학습을 받을 이유가 사라진다는 말이다. 다양한 방법으로 사교육을 억제하려고 해도 본질적으로 학교 공부를 통한 학업 성취에 거는 기대가 회복되고 학교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지 않으면 상황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문화현상으로 자리 잡은 선행학습이 학교 교육의 신뢰 회복과 모순관계에 있다는 사실이다. 쉽게 말해 아무리 학교 수업이 좋아져도 사교육에서 선행학습을 한 학생들에게 무용지물일 뿐이다.

야구장 패러독스란 말이 있다. 경기장면을 제대로 보기 위해 앞줄에 있는 사람이 일어서면 뒤에 있는 사람도 일어나야 하고 결국 모두가 일어서지 않으면 경기를 관람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지금의 선행학습이 바로 그런 형국이다. 효과를 떠나서 모두가 하기 때문에 혼자만 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참을 수 없는 심리적 압박감에 시달린다. '사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아이의 미래가 없을 것 같다'는 어떤 부모의 하소연은 과장이 아니라 솔직한 심정이다. 그렇다면 모두가 안심하고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바로 법률로, 사교육 전체는 아니더라도 선행학습만큼은 금지시켜야 그래도 안심하고 하나둘 자리에 앉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겠는가? 선행학습을 포기한 학생들이 하나둘 학교 수업에 열심히 참여해야 비로소 학교 교육의 정상화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박재원  
(비상교육 공부연구소 소장,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노위리 상담넷 소장)



# 사교육 전문가 22인이 원하는 사교육 활용법 9가지

과장되고 왜곡된 정보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이 이익인지 똑똑하게 따져서 학원 보내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 1. 학교 시험 전과목 대비 종합학원은 삼가세요

성적이 단기적으로 오를지라도 혼자 공부하는 습관을 방해하기 때문에 해로워요.

## 2. 취약한 과목이 있으면 인터넷 강의를 들든지 개인과외를 일시적으로 이용하세요.

학원들은 맞춤형 지도를 하지 못해요. 상위권 학생에게 집중하기 때문에 기초가 부족한 학생일수록 학원은 도움이 되지 않아요.

## 3. 맞벌이 가정이라도 아이 혼자 있는 시간이 절대 해로운 것은 아니에요.

공부에 방해되는 환경을 먼저 살피고 아이와 책임기 및 공부계획을 함께 세워 점점 격려하세요.

## 4. 취약한 과목이 있으면 보충차원에서 2과목 이내 사교육은 받을 수 있지요.

더 이상은 학교공부 복습할 시간이 부족해요. 복습이 성적 향상에 가장 중요하답니다.

## 5. 학원을 보낼 때는 진도 경쟁이 덜한 곳을 선택하세요.



남보다 진도 더 빨리 빼는 경쟁은 금물이에요. 학교에서 배운 것을 복습하는 것이 훨씬 나아요.

## 6. 수학처럼 어려운 과목일지라도 평상시 학원에서 선행학습을 하면 좋지 않아요.

방학 중에 다음 학기 예습이면 충분하지요. 중하위권 학생들은 상위권 학생 따라 선행학습을 하기 보다는 이전 학기 배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도록 복습을 하는 것이 더 나아요.

## 7. 영어교육은 초등 3학년 이후부터 해도 충분해요.

영·유아 시기부터 영어를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효과도 적고 부모와 아이 모두 지치게 합니다. 학교 진도 따라가며 엄마표 영어 또는 회화중심 영어 학

원을 이용해 보세요.

## 8. 학습 강도가 높은 고액 국내외 영어 캠프는 영어에 대한 흥미를 반감시킨답니다.

영어캠프는 잘만 활용하면 영어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다만, 특목고 관련 전문어학원이 비싼 참가비를 요구하는 '빡센' 입시캠프는 피해야 해요. 캠프는 경험의 폭을 넓히고 영어 흥미를 길러주는 정도면 충분해요.

## 9. 성적과 등수가 아니라 미래 직업에 대해 관심과 의욕을 갖게 하세요.

그것이 공부에 대한 흥미와 의욕을 생기게 하는 가장 좋은 길이예요. 아이가 원하는 미래를 상상하면서, 그 호기심이 공부를 이끌어가도록 하면 직업선택과 학업성취라는 두 마리 토끼 모두를 얻을 수 있어요.

박민숙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08년 6월 창립 교육시민단체. 현재 선행학습금지법

제정운동. <http://www.noworry.or.kr>

02-797-4044 후원계좌:우리은행 1006-801-324738

(예금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한번 뿐인 인생,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며 맘껏 살아봐

중3 아들과 중2 딸을 둔 전업주부입니다. 큰 아이는 현재 사교육을 전혀 받지 않고, 딸아이는 작곡가가 되고 싶고, 예고를 가겠다 하여, 작년 여름부터 피아노와 작곡을 가르치는 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큰 아이는 컴퓨터를 하루에 5시간 혹은 그 이상도 합니다. 너무 많이 한다는 것을 자신도 알지만 통제가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러나 아들과의 사이는 좋습니다. 이른 아침 강아지와 산책 동행, 설거지하기, 청소하기, 쓰레기버리기 등 저의 부탁을 잘 들어주는 편입니다. 날마다 신문을 꼼꼼히 읽고, 책도 읽고, 동생이 치던 바이엘 교본을 보면서 피아노 연습도 합니다. 일본어는 책을 보며 독학하더니 일기나 메모를 쓸 때면 남에게 자기 마음을 보여주기가 싫어선지 일어로 주로 씁니다.

여러 가지 사교육을 받던 큰 아이는 결국 5학년



때 모든 것을 안 하겠다고 하였고 약속한 기간도 채웠기에 사교육을 끊게 되었습니다. 자녀의 소질과 흥미를 잘 관찰하고 이를 살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말도 있지만, 비싼 수강료와 근사한 언어들은 엄마의 허영과 욕심을 충족시켜주었을 뿐 아이에게는 인내의 시간으로만 기억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얼른 그 뒤에 할 말을 자기가 미리 말하면서 "엄마는 이렇게 말할 거잖아!" 좋은 교육을 받도록 알찬 정보를 주고 싶어도 아이는 제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 힘이 약한 아이는 엄마에 맞서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그렇게 찾은 것인가 봅니다. 새로운 소통의 계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아들과의 여행을 시도했습니다. 저의 제안에 "안 가~!"가 첫 반응이었지만, 여러 번 공을 들여 첫 여행으로 월정사 걷기대회에 참가했습니다. 부딪힘의 언어를 버리고 새로운 경험과 사건에 맞는 언어를 사용하면서 조금씩 대화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이어지는 기회를 통하여, 상황을 즐기고 선택하고 의견을 묻고 생각을 나누며 아주 작지만 둘만의 공감대가 생기는 소중한 체험을 쌓아 갔습니다.

작은 아이는 여러 면에서 달랐습니다. 큰 아이만큼 내 마음을 고통스럽게 한 적이 없습니다. 유치원 친구가 피아노 치는 것이 좋아보였는지 피아노학원 보내달라기에 7살 때 개인레슨은 받게 하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몇 번 콩쿠르에 나가더니 3학년말, 피아노를 쉬고 싶다고 했습니다. 한 곡을 몇 개월 씩 반복적으로 쳐야하는 것이 힘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쉴 줄 알았는데 1년이 지나도 피아노 얘기를 다시 꺼내지 않았지만, 학년이 높아지면서 주위로부터 음악에 대한 인정을 조금씩 받게 되고 학교에서 하는 진로적성검사에서도 예술영역에서 월등히 높은 점수가 일관성 있게 나와, 결국 음악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음악을 전공하려면 꽤 돈이 많이 들어서 남편 월급으로는 감당하기 어렵지만, 노후자금 일부를 쓰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이것보다 더 하고 싶고 더 좋은 것을 발견하면 진로를 바꿔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큰 아이가 6학년이던 2008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을 알게 된 후 저는 열심히 강의를 듣고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거기서 배운 '공부하는 삶'은 저의 모토가 되었고, 아이를 바꾸기 전에 제가 먼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살고 싶은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먼저 저 자신에게 질문했고, 아이들의 꿈은 아이들이 꾸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꿈이 있고, 그 꿈을 이루고자 공부하고 활기차고 당당하게 살고 있기에 아이들을 불러 말합니다. "한번 뿐인 인생,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며 맘껏 살아봐!"

최 성순





## 거제지회는요~

거제지회는 올해 교육공동구매 설명회, 새내기학부모교실, 거제시 사회단체 보조금 사업 '체험학습지도자교실' 강사양성과정을 진행했습니다. 앞으로 역사기행을 비롯해 생태체험 등 체험학습활동에도 중점을 둘까 합니다. 거제시민단체 연대활동, 경남교육연대 활동으로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 중단을 요구하는 촛불문화제, 거제지역 8개 지역아동센터와 함께 어린이날 행사 등을 하였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비 건립을 추진하는데 거제 참학이 간사단체를 맡았습니다.

거제지회에서는 영어소모임, 수학소모임, 체험소모임이 꾸러지고 있습니다. 거제 참학의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울타리에 갇혀 있던 생각들이 조금씩 사회 현상에도 귀 기울이게 되고 참학의 늪에 점점 빠져듭니다.

전 지회장님이 거제 참학의 위상을 많이 높여놓은 덕분에 여기저기서 같이 일을 하지고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거제 참학 파이팅!



**의왕지회** 본부 조직위원장이 지회운영 메뉴얼 연수를 진행했어요.



**정읍지회** '수학, 어떻게하면 사교육없이 잘 지도할수있을까?'의 주제로 현직 수학 선생님을 모시고 모임을 했어요.



**수원지회** 학부모 박물관 체험으로 수원화성을 돌아보았어요.





**포항지회** 2012년 12월 22일 토요일 제8회 청소년 어울마당을 엽니다.



**전북지부** 가족 나들이를 다녀왔어요.



**울산지부** 밀양으로 회원역사기행을 다녀왔어요.



**서울남부지회** 10월 13일, 청계산 생태체험에서 즐거운 시간!



**상주지회** 권정생 생가를 다녀왔어요.



**부산지부** 녹색식생활 체험학교에서 만들었어요. 맛있겠죠?



**나주지회** 10월 12일, 학부모 공개강좌를 했어요.



**김해지회** 10월 15일, 사무실 개소식에 많이 와주셨어요.



**광주지부** 화정남초등학교에서 학부모 대상으로 '지구와 내아이의 건강을 살리는 안전한 밥상'에 대한 교육을 했어요.



**고양지회** 풍물패 흠마음이 하이서울페스티벌 개막공연에 함께 했어요.





지부지회 소모임 - 진주지회 학부모리더

## 작은 실천을 몸으로 하는 학부모리더 활동을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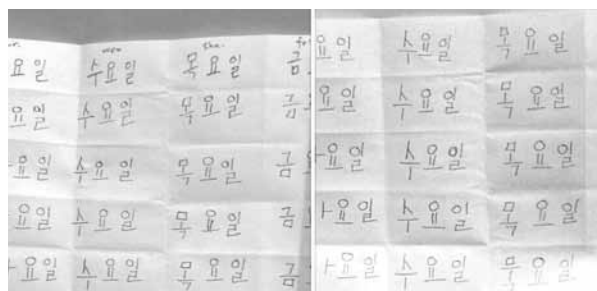
지역 활동가로서 인연을 맺게 된 것은 교과부 모니터단 활동을 하면서, 올 봄 '학부모리더'라는 낯선 타이틀과 첫 인연을 맺게 된 것이다. 자녀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가정에 대한 맞춤형 학부모교육 확대와 진로, 인성교육 등 활용 가능한 인력배출 과정에 추천을 받게 되었다. 저소득층, 교육취약계층 학부모와 학생을 대상으로 소규모 혹은 일대일로 진로, 학습, 상담,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코디활동과 돌봄을 병행하는 일이다. 학교 안에서 그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하며 자녀 양육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찾아가 필요한 정보와 프로그램, 기관연계 활동을 하면서 조금씩 커가는 나 자신을 느끼게 되었다.

8월말 다문화가정을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소개받았다. 정촌초등학교 담당교사를 만나, 나와는 생김새가 다른 이방인과의 인연을 맺게 되었다. "아뽀사!" 이들은 다문화가정이 아니라, 외국인 가족이었다. 파키스탄에서 경상대 공대 대학원에 유학 온 아빠를 따라 3년간 한국에 체류하게 된 Maimoona라는 여자아이는 정촌초 1학년생. 언어 장벽에 부딪쳐 학교생활이 순탄하지 못한 아이를 도와주는 일이다. 아이 엄마는 방과 후 아이를 데리러 오는 우리 엄마들과 똑같았다. 아이 동생은 5살배기 사내아이. 나와 이 세 사람이 한국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살기 서막이 오른 것이다.

점심 먹었니? (Ate lunch?) jeomsim meogeossni?

나의 짧은 영어 실력은 나를 부지런하게 만들었고, 그렇게 우리의 수업은 익어가는 벼처럼 색깔 옷을 입고 있었다. 아이 집에 가서 두 번 수업을 하면서 가재도구에 한글 이름을 적어 붙이고 그것을 자꾸 반복하게 하고, 세탁기가 작동되지 않으면 A/S 센터를 안내해주고, 재래시장과 마트 장보기를 같이 해보고, 내년에 아이 동생이 다니게 될 유치원을 알아보는 것이 그들이 한국에 머무는 동안 도움을 줄 수 있는 일들이다. 집에 가서 쉐이크와 감자를 으깨고 조류고기를 넣어 만든 파키스탄 빈대떡을 먹으며, 그 나라 생활 이야기를 들으며 이 곳 생활이 얼마나 불편하고 외롭고 힘들지 알 수 있었다. '보고 싶다'라는 표현을 배우자 그녀는 파키스탄에 두고 온 부모형제를 떠올리며 "보고 싶다"고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그녀와 특히 친하게 된 것은 친정엄마 나이가 나보다 일곱 살이나 아래인 40세라는 것이다. 요즘 애들 말로하자면 한마디로 '헐~!'. 나는 그녀에게 '언니'라는 단어를 가르쳐주고 그렇게 부르라고 했지만 지금도 나를 'teacher'라고 부른다. 쑥스럽고 어색하게 만드는 재주를 가진 마녀. 그녀는 우리글을 예쁘게 잘 쓴다. 발음도 단기간 배운 것에 비하면 잘 하는 편이다.

병설유치원 원서접수나 스쿨뱅킹 통장 개설은 모두 단순한 일이지만 문화가 다른 사람에게 이해시키려면 여러 번 이야기해야 한다. 그녀는 다시 남편과 상의하고 주변 유학생 가족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서야 내게 답을 준다. 불쾌할 수도 있지만,



당연한 일이라 보인다. 학교일정 챙겨주고, 태풍 때면 학교까지 말라고 문자로 알리고, 현장학습 안내에서 유치원 입학원서 작성까지..... 24시간 함께해도 다 못할 일들이지만, 계속 도와주고 싶다. 행복하고 설레임이 있는 시간. 나를 젊게 만들어 준 외국인 친구들이 나를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 되면 나는 그들의 추억 속에 빛바랜 사진처럼 빨리 들어가 있을 것이다.

김미선 (진주 지회장)

## 학부모리더 활동을 하면서

내 아이, 내 부모 챙기기에 급급해 학부모활동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 매일 전쟁처럼 살아야 했기에 그런 건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잘난 자녀를 둔 학부모 몫이라고 생각했다. 올 초 큰아이 학교에서 처음 제안이 들어왔을 때도 고사했다. 그런데 학교 운영위원회도 말고, 개성 뚜렷한 세 자녀를 키우고 있으니 경험을 나누고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거라며 지회장님께서 적극 권유하셨다. 사고치는 기분으로 시작했다.

아무 것도 모르면서 학생상담자원봉사를 시작했다. 맞벌이, 취약계층, 다문화... 우리 주변에 늘 어가는 다양한 가족 형태와 달라진 시대적, 개인적 상황으로 인해 학교와 가정, 학생 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학부모들에게 찾아가는 코디 역할이란다. 내가 직접 모든 걸 하는 게 아니라 유관단체의 도움을 받고 전문가를 소개해 주는 조정자의 역

할은 나를 즐기는 편이라 두렵지는 않았다.

여름방학 때, 중학생 한 명과 연계되었다. 담당 선생께서 학생상담을 맡아 달라고 하신다. '전문상담사도 아닌 내게까지...' 걱정이 되었다. 담임선생님과 긴 통화를 거듭하며 논의했다. 키도 크고 둥글둥글, 나를 만날 필요까지 없을 것 같은데 선생님은 왜 그렇게 걱정하시고 잘 부탁한다며 신신당부하셨는지 의구심이 드는 첫인상이었다. 엄마 직장이 멀어서 주말도 아닌 월 1~2회쯤 집에 오신다고 한다. 아빠가 식사와 빨래도 꼼꼼히 챙겨 주시고 같이 게임도 하는 신세대. '엄마랑 떨어져 있긴 하지만 복 받은 상황이구만.' 그런데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 학원 마치고 집에 가서 엄마랑 통화할 때라고 한다.

운동이라고는 숨쉬기밖에 안하는 내가 땀 뻘뻘 흘리며 함께 배드민턴 치고, 테트리스밖에 모르는

데 게임도 하고, 그림그리기, 심리테스트, 글쓰기 등 한 번 웃겨 보려고 광대 짓을 했다. 뭘 해도 크게 재미있어 하지 않는다. 내 능력의 한계인가? 그런 만남이 이어지다 중간고사, 추석을 지내고 첫 활동일. 녀석이 보이지 않는다. '드디어 차인 건가?' 장염이 걸려 조퇴했는데 미처 내게 연락이 닿지 않았던 거라고 한다. 그나마 다행. 당사자 없으니 편하게 선생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다. 늘 시큰둥하던 녀석이 이제 Wee Class를 기웃거리기도 하고, 말도 걸어온다고 하신다. 처음에 비해 많이 밝아졌다고 고마워 하셨다. "진짜요?" 진주 사투리로 '에나가?' 혼자 있는 시간을 게임과 PC방이 아닌 다양한 활동으로 보낼 수 있도록 많이 보여주고 소개할 것이다. 찾아보니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체험활동, 공연, 시설도 많다. 집에 있었으면 어떻게 이런 정보를 찾아 나서고, 스스로를 돌아봤을까? 내가 그 친구에게 더 고마워해야 할 상황이다. 함께 어른이 되어 간다.

우재란 (진주지회 회원)



## 상담실에서



## 초등학교 장애아동의 학교폭력 피해

아이는 초등학교 3학년이지만 어렸을 때 고열로 뇌손상을 입어 현재 6~7세 수준의 인지기능을 가지고 있다. 작년에 버스로 등하교하는 과정에서 고학년 아이들에게 많이 맞으며 잦은 폭력에 시달렸다. 이번에는 학교폭력을 117에 신고했고 내일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열린다.

우리 아이는 인지기능이 낮아 수업시간에 돌아다니는 등 아이들에게 피해를 주기도 한다. 아이들을 성가시게 하는 경우가 있지만 장애가 있는 약한 아이다. 아이들에게 배려 받아야하는 장애가 있는데 모든 아이들에게 당하기만 한다. 나는 매일 학교 도서관에서 봉사를 하며 아이를 지켜보고 있는데 우리 아이가 당하는 것을 자주 본다. 이번에 문제가 생긴 가해 아이는 작년에 ADHD 약을 먹은 아이로 우리 아이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언젠가 우리 아이 때문에 힘들다며 나와 아이 아빠에게 '00을 죽여 버리겠다'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나는 우리 아이를 괴롭히는 상대방 아이를 전학보내기를 원한다.

## ADHD증후군을 가진 가해 학생

중학교 2학년으로 ADHD증후군을 가진 아이는 학교 적응이 어려워 한 학년을 낮춰 들어왔다. 평소 공부를 방해하거나 거칠지는 않지만 외로움을 많이 타고 감정조절이 잘 안 된다. 수업시간에 뒷자리 아이에게 호감의 표시로 종이를 접어서 주었는데 상대방 아이가 구겨 버렸다. 아이는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상대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대 때렸다.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했고 치료비 보상이야기도 했다. 하지만 피해 학부모와 학교에서는 ADHD가 있다는 이유로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수업을 못 따라가긴 하지만 큰 피해를 주지 않는데 ADHD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학교에 다니기 힘든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 상담실입니다

장애가 있는 학생이 학교폭력의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되는 경우 많습니다. 자기표현에 서툴고 상대방의 감정을 잘 읽지 못하고 감정조절도 미숙하다보니 학교폭력의 표적이 되기 쉽고 우발적인 행동이 상대방에게 위협적으로 느껴져 가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자기보호 능력이 부족한 아이를 학교에 보내며 늘 노심초사하는 학부모님의 마음이 안타깝게 전해옵니다. 약한 아이이니 만큼 배려하고 보호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항상 당하기만 하는 것 같아 억울한 감정이 생기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장애를 가진 아이를 다른 친구들이 도와주고 배려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한없이 참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아이들인지라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성가시거나 짜증스러울 수 있는 상황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무조건 우리 아이가 약한 아이니까 도와주어야 한다는 생각만을 하다보면 일반 학부모들과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인지행동치료나 사회성 훈련 등 적절한 교육 및 치료를 통해 아이가 사회적 기술을 배워 다른 아이의 불편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보조교사나 특수학급의 도움을 받아 갈등상황을 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ADHD를 가진 학생은 특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잉행동이 있고 감정조절이 어려워 돌발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동료학생들에게는 위협적인 존재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억울한 마음이 많으시겠지만 우선 피해자 부모의 속상한 마음을 이해해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장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서로 이해하고 수용해야하지만 ADHD가 있다고 무엇이든 배려 받고 이해받을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지요. 현재 ADHD 치료를 하지 않는다고 하니 아이를 위해서 또 주변의 친구들을 위해서 치료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아이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부모가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학교에 적극적으로 전달하며 대화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학교생활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반 학생들과 학부모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그들이 장애를 가진 아이에 대한 편견과 거부감을 가지지 않도록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생활글

## 무엇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비싸도 너~무 비싸” 일요일 밤에 개그 코너에서 ‘정여사가 부르짖는다. 너무 좋아, 너무 바빠서, 넘 올랐어, 너무 나간 거 아냐? 지나치다는 의미를 지닌 ‘너무’가 무수한 대화 속에 촘촘히 끼어들어가 있다. 매우, 몹시, 대단히, 무척, 심하게, 엄청 따위의 유사어 중에서 ‘너무’가 대중이 편하게 떠올리는 수식어 자리에 올라있다. 아이를 칭찬할 때 남발하던 ‘착하다는 표현이 적합한 쓰임새를 따지지 않고 갖다 붙이는 유행이 있듯 ‘너무도 근래에 부쩍 사용하는 부사가 아닐까 한다.

이 뿐이 아니다. “이거 어때?”라고 의견을 물으면 백에 아흔아홉은 “응, 좋아”라는 무난하고 성의가 좀 모자라는 대답을 한다. ‘좋다’ 말고 다른 형용사도 사전 밖을 나와서 돌아다녔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왔다. 기분이, 날씨가, 머리로, 솜씨가 ‘좋다’로 뭉뚱그리기 보다 상쾌하고, 쾌청하고, 우수하고, 빼어나다로 섬

세하게 조합하는 언어세계에서 살면 어떨까 말이다. ‘좋다’의 용례가 광폭인 이유는 대화를 할 때 끌어다 쓰는 어휘의 구사력이 빈약한 탓이 크고, 어떤 표현을 선택할까 쪼잔하게 고민할 가치가 없으니 입에 익은 단어가 재빨리 튀어나오는 법이다.

교양인이라면 영어 단어는 2만 2천 개를 알아야 한다는 믿거나말거나 설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당신은 우리말을 몇 단어나 아는 지. 어림잡아 본 적조차 없어 내 머리에 저장된 낱말의 양을 모르지만, 3천 개 가량의 단어를 기억하고 있으면 사는데 지장이 없다고 들었다. 그러나 말하기나 쓰기에 동원되는 실질 어휘는 이 중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리라. 단출한 양으로도 의사소통하는데 지장 없으니 얼마나 효율적 이냐고 할 수만은 없지 않나?

어느 날부터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을 들을 때 식상한 단어를 얼마나 빈번하게 쓰는지 관찰하는 버릇

이 생겨났다. 우선 나의 언어 습관을 살펴보니 ‘그냥’, ‘진짜’, ‘정말’, ‘잘’, ‘아주’, ‘뽕’, ‘저기’, ‘있잖아’ 와 같은 단어를 추임새로 반복하고 있다. 노래 부를 때 음정 한군데, 박자 요만큼도 틀리지 않으려 주의한다면 말 한마디도 정확하고 맛깔스럽게 하고 싶은 마음도 수용해줘야 하지 않나. 별스런 주관에 입각해 평범치 않은 단어를 고르느라 머뭇거리는 게 약점으로 드러나긴 한다. 의미를 전달하면 되지 우아하거나 비범한 단어를 고르느라 머리가 회어질 일이 있소?

영어를 10년 공부해도 울렁증이 멎지 않는 것을 괴로워하던 이여, 이삼십 년을 익혀온 우리 말법은 정통한지 잠시 고찰하시길. ‘거시기’ 낱말 하나로 여러 상황을 돌려막기 하지 말고 언어생활에 윤기를 입혔으면 하는 바람을 바람 부는 저녁에 털어놓는다.

이정심 (14기 상담원)



마중물 (9)

## 교과부의 교권보호대책이 농친 진실



젊은 여자 선생님이 수업 시간 중 집중하지 않고 비딱한 자세로 앉아있는 여학생에게 “너 그러면 벌점이야”라고 했다. 학생은 선생님에게 들으라는 듯이 “미친”이라고 내뱉었다. 선생님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그렁그렁 했다.

또 다른 상담 내용. 틱 장애가 있는 학생의 어머니는 학기 초 담임에게 “아이가 틱 장애가 있으니 잘 좀 돌봐 달라”고 했다. 한 학기가 지나자 학생의 틱 증상은 더욱 악화되었다. 학생의 어머니는 학교가 아이를 방치해서 아이의 상태가 더 안 좋아졌다며 담임에게 아이의 치료비 배상을 요구하였다. 자신도 신경을 쓴다고 썼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런 일들은 사실 주위에서 너무 흔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선생님들은 모두 곤혹스러워했고, 또 이 상황으로부터 상처를 받았다. 그런데 교과부는 무

너진 교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른바 ‘교권보호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주요 내용은 교권을 침해한 학생에 대하여 징계를 강화하고, 학부모에 대하여 형사상 가중 처벌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은 학생·학부모와 교사간 갈등의 근본 원인을 외면한 채, 갈등의 책임을 고스란히 개별 학생·학부모, 교사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교과부 대책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 아무런 답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학생은 왜 그렇게 교사에게 적대감을 가지게 되었을까. 학부모는 왜 그렇게 학교에 찾아가서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었을까.” 그저 일부 학생, 학부모의 문제라면 왜 언론이 보도하는 이러한 학생, 학부모가 점점 더 증가하는 것일까? 교사가 학생에게 벌점으로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학생이 흥미를 가지도록 유도할 수 있었다면? 틱 장애를 가진 아이에 대하여 조금 더 특별한 배려를 할 수 있었다면?

입시 위주 교육 속에서 교사는 아무리 다양한 방식으로 수업을 하려 해도 그 틀을 벗어나기 힘들

다. 짧은 시간에 입시에 나올 법한 많은 지식을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주입식 교육을 할 수밖에 없고, 이를 위해 학생들로 하여금 일사불란한 자세로 지시에 따르도록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이 억압적인 공간 속에서 학생들은 교사를 한 인간으로 대하기보다 학교를 대변하는 하나의 권력으로 마주하게 된다. 폭력적인 권력에 대하여 눈을 흘기며 욕설을 좀 했다한들 죄책감이 들 리 만무하다. 또한 지금과 같이 수업보다 공문처리와 행정업무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하는 교사는 한 학기에 한 번, 학급 전체 아이들을 상담하기도 어렵다.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아이가 방치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학부모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학교와 교사를 원망하게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진정 교사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과부가 해야 할 일은 학교의 문턱을 높이고, 교사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를 엄벌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을 존중하고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아닐까 싶다.

강영구 (변호사, 자문위원)

정겨운 만남 - 발칙한 학부모 인터뷰

## 치맛바람, 바지바람 떠나 혁신바람을 선택하다

반갑습니다. ^^

저와 아내 그리고 천왕초등학교 2학년에 다니는 아들! 아들과 가장 즐겁게 하는 놀이는 캐치볼입니다. 그래서인지 아이가 좋아하는 운동이 야구예요. 아내는 잠시 휴직하며 아이의 유년기 기억을 풍요롭게 하는 데 에너지를 쏟는 중입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력을 이야기하신다면?

우리 가정에선 학습을 강요하지 않고, 아이가 원하는 삶의 추구를 지지하는 부모가 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서안정 및 다양한 체험과 활동을 통한 건강한 성장에 더 의미를 두고, 혁신학교를 선택해 이사하여 1년이 지난 지금 나름 만족하고 있어요.

혁신학교의 수업내용은 어떤가요?

2학년의 경우 '주제통합프로그램'으로 프로젝트 수업을 합니다. 예를 들어 한 달 동안 '우리 동네'란 주제로 지역을 탐방하면서 지역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현장학습과정에서 나이트 세는 법과 식물 종류도 알아보고, 이웃에 대한 인터뷰 등 수업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아이가 그러한 수업방법을 좋아하나요?

발표회 때 그동안 탐색한 결과물을 연극, 동시, 노래로 소개하고 교실 뒤 벽면에 우리 동네 지도에 작은 벤치까지 그려 넣을 정도로 주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발표회 준비과정을 통해 친구들과의 협력을 몸으로 배웠답니다.

학부모회 대표로서, 혁신학교 학부모회가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반강제적이고, 임원들 위주의 소극적인 학부모활동이 아니라 첫 총회에서부터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하고 있으며, 교사와 학부모의 많은 노력으로 혁신학부모회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혁신학교학부모로서 앞으로 어떤 노력과 기대를 바라나요?

‘혁신학교’가 새로운 모델이라면 학교를 구성하는 주체(교사, 학부모, 학생)들도 다 같이 새로운 모델의 정형을 만들어 가는데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치맛바람, 바지바람이 아닌 혁신학교 학부모간에 소통바람이 필요합니다. ‘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만큼 변화의 노력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교육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처음 부모가 되었을 때 아이가 건강하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합니다. 그러나 아이가 커가면서 기왕이면 공부도 잘해 좀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길 바라는 마음을 숨길수가 없습니다. 혁신초등학교보다 혁신중학교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고, 결과에 집착하는 우리시대의 변화는 학부모들의 진심어린 관심과 참여, 진정한 혁신학부모로서 노력이 요구됩니다. 여기에 참교육학부모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인환 (천왕초등학교 학부모)



## 운동회로 소통하고 성장하는 학교

가을은 하늘이 높고 날씨가 맑아 독서하기 좋은 계절이다. 오곡백과가 풍성하여 천고마비의 계절이라 불리는 풍요의 계절이다. 울긋불긋 자연의 색들도 덩달아 화려하여 산은 등산객으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또한 각종 행사로 즐거움이 가득하다.

이즈음 우리의 학교도 부산해진다.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내기 위해 운동회, 전시회, 축제, 학예회 등이 열리기 때문이다. 그 중 운동회는 긴 준비기간을 필요로 한다. 전 학년이 참여하는 단체무용으로 운동장은 연습장이 된다. 열심히 준비하기 때문에 아이들도 운동회가 설레고 부모님이 꼭 오시기를 원한다.

운동회는 여러 형태로 행해지고 있다. 전교생이 참여하는 운동회, 오전·오후로 나누어 저학년과 고학년이 따로 하는 운동회, 요일을 달리하여 학년별로 열리는 운동회, 단체무용을 하지 않고 단체경기만하는 운동회 등이다.

과거를 회상하면 운동회는 또 다른 형태의 배움이 었다. 부모님들은 모든 일 제쳐두고 맛난 도시락을 싸



서 운동회에 참석했다. 지금은 급식제공으로 가볍게 운동회를 볼 수 있다.

고깔이나 훌라후프에 달기 위해 종이꽃을 만들고, 소고나 곤봉에 긴 줄을 잘라 붙이고, 직접 종이로 옷을 제작하여 입었기에 운동회 때면 준비물 준비에 바빴다. 연습하다 보면 석양을 보며 집에 가기 일쑤였

다. 그러나 고생스런 준비과정은 운동회의 즐거움으로 모두 잊을 수 있었다. 운동회를 준비하면서 동질감을 느껴 친구와 더 친해질 수 있었다.

운동회는 부모님의 만남과 소통의 장이 된다. 소식을 주고받으며 아이들의 학교생활과 주변 친구, 선생님들을 알 수 있다. 음식을 나누며 정도 돈독해진다. 이런 면에서 과거 운동회는 부모들이 꼭 참여해야하는 필수코스였다. 학교를 자주 갈 수 없고 공개수업도 없던 시절이었지만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었다.

요즘은 일부 학교에선 연습으로 인한 학업지장을 우려하여 운동회를 축소하거나 해를 거르기도 한다. 그러나 운동회에 보이지 않는 이면을 들여다보면 성장과 소통, 협동, 성취감 등 장점을 찾아 볼 수 있다. 마을 음악회나 마을 체육대회가 있듯이 운동회도 마을 축제의 한 형태로 생각하고 참여한다면 시너지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직장인 학부모를 배려해 토요일에 운동회를 여는 착한 학교도 있다. 바람직한 모습이며 부러운 학교다. 운동회의 긍정적 발전을 위해 토요 운동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옥주 (기획위원)

## 잘하고 싶은 아이들과 함께 볼만 한 책 - 「나도 잘하고 싶다구」 (이지은, 팜파스)



도서관에서 책을 둘러보다 딸이 했던 말이 제목인 책을 발견했다.

시험공부도 하지 않는 게 화가 나서 “공부를 잘 하고 싶기는 하니? 그런 것 같지도 않는데...”

“엄마가 어떻게 알아? 나도 잘하고 싶거든...” ‘참을 끈’을 한 번도 안 쓰고 언성을 높이는 것 같아 부모로서 회의를 느끼고 있던 나에게 책이 크게 다가왔다.

한겨레신문에서 학습법 상담가로 활동 중인 글쓰이는 청소년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줄까?

공부를 잘하고 싶은 향기에게는 “공부를 안 해봤으니 공부할 때 써야 할 머리가 힘이 없는 것뿐이야.

원래 외울 능력이 없는 사람은 없어. 그리고 수능은 외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야. 걱정하지 마.”라고 응원한다.

또한 다이어트를 포기하지 않고 하고 있는 향기에게 “야, 그거 대박이다. 내가 성적 올리는 애들은 많이 봤어도 다이어트 성공하는 애는 못 봤거든. 장담컨대 성적 올리는 건 다이어트보다 쉬울 거야”하고 남보다 잘하는 것을 칭찬하며 자신감을 준다.

꿈을 묻는 지원이에게는 “어렸을 때는 의사도 되고 싶었고 법관, 컴퓨터 공학자, 이것저것 꿈이 많았던 것 같은데 중3 이후에는 꿈이 뭐냐는 아버지에게 ‘몰라’로 일관했지. 서른을 훌쩍 넘긴 아줌마가 되어서야 글쓰기, 말하기 같은 사소한 재능이 어떻게 나를 만들어 가는지 알기 시작했고 지금도 꿈꾸는 중이야.”라며 꿈이 뭔지 모르는 게 자연스럽다고 말한다.

한 번은 들어봄직한 ‘도대체 왜, 공부를 해야 하는 건데?’하는 질문에는 “누구나 잘 살고 싶고 꿈을 이

루고 싶지만 모두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 있지요. 좋은 습관, 긍정적인 사고방식, 꾸준한 노력, 포기하지 않는 근성, 자기관리... 어른이 된다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성공의 습관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공부가 잘 되는 날은 공부하는 이유가 궁금하지도 않다며 무엇을 위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내 모습이 좋아서라도 노력하라고 권한다.

나는 공부 방법을 가르쳐주는 데도 그렇게 안하는 딸에게 화가 났었다. 딸이 자기의 마음을 못 알아주는 엄마에게 화가 났을 거라고는 생각 못하고.

오늘은 딸과 진지하게 대화해보야겠다. “힘들지? 너도 잘하고 싶은데 생각처럼 안 되고...”

혹시 또 ‘참을 끈’이 필요하다 싶으면 조용히 이 책을 건네면서 내 마음을 보여주고 싶다.

정방 (기획위원)



## 밥상머리교육(23)

# 교수님택에서는 밥상머리교육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밥상머리교육 특강을 다니다 보면 강의 후 나오는 가장 겁나는 질문중 하나다. 건축학을 전공하는 큰아들은 학교근처 자취방인 작업장에서 살다시피 해 한 달에 몇 번 집에 오기 어렵다. 대학2년생 작은 딸도 사회학과 철학 공부에 열중해 스터

디그룹을 결성, 열심히 활동하다 보니 매일 자정이 다 되어야 집에 돌아오니 사실 얼굴 마주보는 시간이 아침 외엔 거의 없다. 아내도 조각보에 빠져 밤 늦게까지 일하는 올빼미스타일이고 난 새벽 5시경에 일어나 냉수마찰하고 주로 글을 쓴다. 그러다가 아내가 만들어 놓은 현미누룽지를 물에 끓여 먹고 학교에 나선다. 요즘 우리 가정은 함께 밥 먹을 시간은커녕 얼굴 보기도 힘들다. 마침 한강변에 '천년초 체험농장'이란 텃밭을 만들어 놓아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시간만 나면 그곳에서 함께 일하며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오랜 전통의 가톨릭 가정인데도 일요일에 다 함께 성당에 나가는 것은 부활절이나 성탄절 축일에나 가능하다.

사실 우리나라 밥상머리교육은 애들이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 시절이 아니면 거의 힘들다. 교수라는 비교적 자유로운 직업 때문에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는 일찍 퇴근해 놀이터에 가서 놀아주거나 주말엔 자전거를 타고 멀리 소나무 숲에 가서 탐험을 즐기는 등 멋진 아빠노릇을 했다. 그러나 요즘 대부분의 아버지들은 밖에서 저녁 먹고 늦게 집에 돌아오므로 이런 일은 상상조차 어렵다. 더구나 MB정부 들어서는 애들도 영어과외를 다니거나 일제고사성적 경쟁으로 주말마저 학교에 나가 공부하는 분위기여서 이젠 초딩들조차 입시노예가 되어버렸다.

떠도는 빠있는 말로 자녀를 세칭 명문대에 보내려면 3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고 한다. 첫째 할아버지 재산, 둘째 엄마 정보력, 셋째 아버지 무관심이다. 아버지의 벌이만 가지고는 고액 족집게 과외비용을 댈 수 없고, 아버지가 인성교육 어찌고저찌고 참견하면 시간을 빼앗을 뿐 아니라 아이 기분을 망쳐 공부가 방해받기 때문이란단다. 엄마는 그저 아이가 입시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은 애들이 본능적으로 원하는 달고 기름진 패스트푸드나 챙겨주고 입시정보를 얻

기 위해 같은 반 입시맘 동아리를 만들어 수시로 만나는 게 큰일이다. 아이는 자기방 청소는커녕 주말에 교회나 사찰은 물론이고 친인척간의 집안일에서도 열외가 인정된다.

이렇게 키우면 아이들 인성교육은 실종된다. 첫째 입시 때엔 나도 이 때문에 아내와 무척이나 큰 갈등 속에서 살았다. 대부분의 아버지들도 이시기에 아내와 많이 다투는데 한국가정의 이혼율이 가장 높은 시기가 바로 자녀의 대입시기라는 통계가 이를 뒷받침 한다. 온실에서 자란 식물처럼 커서 남들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 같은 건축분야 공부를 하고 있는 졸업반 아들. 당차게도 엄마의 입시중심 교육을 완강하게 거부해 엄마와 사이까지 나빠지더니 엄마가 원하는 재수나 편입은 안중에도 없이 철학과에 입학해 사회학과 복수전공을 하고 있는 2학년 딸. 누가 더 훌륭한 인생을 만들지 당장 알 수는 없지만 서로 매우 다른 인생항로를 살고 있어 두 아이들 미래 모습이 부모로서도 궁금하다.

이기영 (초록교육연대 상임대표, 호서대 교육대학원장)

## 청소년 진로 북토크쇼

## "뭘 해도 괜찮아!" 북 콘서트



가을비가 종일 추적추적 내리던 10월의 마지막 주 토요일 저녁, 어둠이 내린 파주출판단지 사계절 출판사 1층 북 카페가 환하게 불을 밝혔다. 사계절 출판사에서 새로 나온 지식소설 시리즈 여덟 번째로 출간된 [뭘 해도 괜찮아] 저자 이남석씨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음악도 함께 듣는 북 콘서트가 열렸기 때문이다. 조금 일찍 북 카페에 도착해 저자를 만났다. 이남석씨는 이미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자아놀이공원], [사랑을 물어봐도 되나요?], [주먹

을 꼭 써야할까요?] 등의 심리학에 관련된 책을 써왔고, 이번에는 꿈을 찾는 진로 심리학이라는 부제가 달린 [뭘 해도 괜찮아]를 썼다. 저자는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것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신의 길을 걸어가기로 바라는 마음에서 집필하게 됐다고 한다.

이 책에서는 대학입시제도가 청소년들의 삶을 옥죄고 꿈을 저당잡고 있는 현실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몸으로 부딪쳐보는 것이 성공이자 행복이라고 강조한다. 주인공 태섭이는 여느 청소년들처럼 중간고사를 봐야하는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어 컴퓨터 게임을 좋아하는데, 선생님 소개로 링컨 자서전을 읽게 되면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삶도 자신과 같이 방황하고 좌절하고 어려움 속에서 길을 찾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 후 선생님과 친구의 제안에 학교 축제를 기획하는 일을 함께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몸으로 부딪쳐 가는 과정을 밝게 된다.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하지 말고 이 것 저 것 해보다보면 재미를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 학부모들은 뭘 해야 할까? 아이의 삶에 과도하게 개입하지 말고 아이가 자신의 길을 두 발로

걸어갈 수 있도록 지켜봐주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꿈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뤄진다."

책의 중간 중간에 '생각의 징검다리'라는 코너를 만들어 진로의 의미, 적성검사 활용하기, 위인전 제대로 읽기, 괴테의 방황과 성장, 진로설계 등에 관한 도움을 주고 있는 것도 활용할 만하다. 무엇보다 기존의 진로에 관한 지침서와 차별화된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아이들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이 꼭 읽어야할 책이다. 아이들이 꿈을 꾸고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곧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오늘 저녁 아이들을 보고 이렇게 말해보자. "뭘 해도 괜찮아!"

박이선 (전 수석부회장, 고양지회 교육문화부장)





사설

# 혁신교육은 지속되어야 한다

2012년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서울교육감 선거도 함께 치러진다. 이명박 정부 들어 교육격차는 더욱 심해졌고, 한줄 세우기 경쟁교육에 휩싸인 아이들은 살려달라며 외치면서 죽어갔다. 당시 ‘리틀 이명박’이라 불린 공정택 교육감은 정권의 눈치를 보며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아이들은 외면한 채 부정부패로 자신의 사욕만 채우다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

2010년 6월 이명박의 교육정책을 반대하고 혁신교육을 내세운 진보 교육감이 대거 등장하면서 교육주체들은 그제야 조금 숨통이 트였다. 그것도 잠시, 교육 자치를 훼손하면서까지 국민들이 뽑은 교육감을 마치 하수인처럼 길들이려고 온갖 고소·고발로 교육감들을 법정에 세웠다. 하지만 민선 진보 교육감들은 정권에 굴복하지 않고 당당히 맞섰다. 교육감 뒤에는 많은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과 짧은 시간이지만 혁신 학교에서 공교육의 희망을 본 학부모들,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가르치는 것에 모처럼 활기를 찾아가는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독하게도 이명박 정권은 진보교육감들이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사사건건 발목을 잡았다. 특히 진보교육의 상징이 된 박노현 서울교육감을 전 세계적으로 사문화된 ‘사후 매수 죄로’ 구속시키면서 시대의 흐름을 되돌려 버렸다. 그동안 온갖 탄압 속에서도 서울교육은 아래로

부터 혁신하려는 변화가 있었다. 짧은 2년이었지만 우리가 바라는 교육의 씨앗은 뿌려졌다. 이제 곳곳에서 그 싹이 돋아날 것이다. 그런데 막 돌아나려는 그 싹마저 뽑아버리려 하고 있다.

이대영 교육감 권한 대행이 그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 교육자로서 아이들보다도 자신의 자리 유지가 더 중요한 가 보다. 또다시 교문 앞에서 두발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방과 후 학교도 비교과 비율이 사라져 문·예·체 교육이 위기에 처해졌다. 담임선생님과 관계를 더욱 더 친밀하게 할 수 있는 소규모 수학여행도, 혁신학교 신규지정과 무상급식 확대도 물거품이 될 것 같다.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연령에 따라 필요한 민주 시민교육, 문·예·체 교육, 인성교육 등이 또다시 문제 풀이 입시교육으로 되돌아갈 모양이다. 참으로 허망하다.

역사를 후퇴시킬 수 없듯이 서울교육의 혁신 교육도 후퇴하도록 놓아둬서는 안 된다. 그래서 다가올 대통령 선거와 서울교육감 선거가 더 중요해 졌다. 특히 대통령 선거에 가려져 서울교육감 선거가 국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진다면 더욱 서울교육이 위태로워질 것이다.

대통령과 서울교육감을 잘 뽑아 2013년 새로운 교육체제를 실현시키자. 그래야 우리 아이들을 살리고 혁신교육을 지속시킬 수 있을 것이다.

새 책 소개

## 100세 건강의 지름길 침상운동

김현갑 지음 / 서정시학

중년 이후 운동을 통하여 근육과 골격을 튼튼히 하는 것은 일상을 의욕적이고 활기차게 시작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운동의 중요성은 누구나 잘 알고 있지만 장소와 시간과 기구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바쁜 일상으로 생각만 앞설 뿐, 실천은 늘 그림의 떡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책은 간단하고 쉬우면서도 연령에 관계없이 신체의 유연성과 탄력을 키우고 유지할 수 있는 운동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저자 스스로 체험한 운동의 효과를 바탕으로, 아침마다 일어나 잠자리에서 잠시 동안 바로 할 수 있는 운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알기 쉽게 사진으로 보여주어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어, 엄청난 학습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 여유시간도 없는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추천사에 보면, 현직 의사조차 이분처럼 살면 의사가 필요 없겠다고 느껴진다고 합니다.

송환웅 (언론정보출판위원장)



발행처 사단법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발행인 장은숙 창간일 1991년 5월 1일  
기획위원 송환웅 고경환 이희정 임영희 김지애 김은영  
김정인 이옥주 정 방  
주 소 (우)110-100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남동 73번지(2층)  
전 화 02-393-8900 전 송 02-393-9110  
상담실 02-393-8980  
누리집 www.hakbumo.or.kr (한글주소 참교육학부모회)  
페이스북 www.facebook.com/chamhak  
트위터 @chamhak  
디자인제작 씨앤커뮤니케이션즈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장은숙 수석부회장 박범이 부회장 김석순 최주영 송환웅 감사 임명희 유지숙 상담실장 고유경 정책위원장 교육자치위원장 조직위원장 최주영 언론정보출판위원장 송환웅 사무처장 박수미 상근자 심정숙 강인수 김은영

서울지부	010-8733-0207	권대행 강혜승
	남부지회 02)588-8980	지회장 강혜승
	동북부지회 02)902-9246	지회장 나명주
경기지부	031)864-3958	지부장 서애란
	고양지회 031)905-5893	지회장 김양완
	구리남양주지회 031)668-2311	지회장 차경희
	김포지회 070-7761-9890	지회장 이정숙
	성남지회 031)716-8583	지회장 서애란
	수원지회 010-2896-8400	지회장 안용정
	안양지회 010-2215-2536	지회장 이정심
	양주지회 010-2259-1030	지회장 이수진
	용인지회 031)281-7969	지회장 조숙희
	의왕지회 010-9467-5306	지회장 정상우
	의정부지회 031)876-2816	지회장 오명실
	파주지회 031)955-1627	지회장 강은영
강원지부(준)		
	원주지회 033)763-6423	지회장 윤금옥
경남지부	055)282-1950	지부장 김미선
	거제지회 055)638-4130	지회장 장윤영
	거창지회 010-3867-6607	지회장 유수상
	김해지회 010-5040-3296	지회장 성명자
	마창진지회 055)282-1950	지회장 진인애
	진주지회 055)748-1352	지회장 김미선
경북지부	010-4511-9143	지부장 신현자
	경주지회 010-6266-8796	지회장 신경진
	구미지회 010-4442-2601	지회장 김성희
	상주지회 010-2276-2838	지회장 김미경
	안동지회 010-2971-0780	지회장 김승균
	의성지회 010-8422-0923	지회장 임창대
	칠곡지회 010-4941-4456	최순필
	포항지회 054)242-9143	지회장 전금순
전남지부	061)334-9271	지부장 이경자
	광양지회 010-8617-8201	지회장 박치현
	나주지회 061)334-9271	지회장 최정희
	목포지회 061)284-6575	지회장 박기철
	영암지회 010-4618-0962	지회장 최옥주
	장흥지회 011-631-1074	지회장 신성호
	화순지회 010-2619-9136	지회장 문은아
전북지부	063)535-0191	지부장 권승길
	정읍지회 063)535-0191	지회장 장세희
충남지부	010-5420-3979	지부장 조성미
	서산태안지회 011-430-3414	지회장 이희출
	천안지회 041)548-6674	지회장 신성정
	홍성지회 010-2614-2208	지회장 김순희
광주지부	062)228-6998	지부장 최은순
대구지부	053)751-4070	지부장 양승희
부산지부	051)556-1799	지부장 객선희
울산지부	052)268-0987	지부장 최선미
인천지부	032)438-3970	지부장 김은종
준비위원회	서부 010-8913-6833	위원장 송성남
	아산 010-7688-4660	위원장 김경숙
	전주 011-676-8191	위원장 염종영

자문위원회 ●이규환(자문위원장·전 이화여대 교수/강명숙(배재대 교수/강순원(한신대 교수/강영규(변호사/강지원(법률사무소 청치 변호사/권정희(놀이미디어교육센터 소장/김기태(호남대 교수/김명선(서울시 의원/김만남(전 경북대 교수/김영심(서울시교육청 장학사/김용일(한국해양대 교수/김이경(한국교육개발원 교원정책연구실 실장/김홍렬(선진회계법인 공인회계사/김희은(여성사회교육원 원장/도종환(사인, 국회의원/민덕기(화산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박수선평(화물만드느여성회 갈등해결센터 소장/배옥병(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상임대표/성열관(경희대교수/송대현(전교조 경북지부 상담교사/송병춘(변호사/송순재(강신대교수/안성문(제일합동법률사무소)/이광철(민변사무처장)/이윤미(홍익대교수/이재분(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센터 소장/임재택(부산대교수/전양숙(서울삼리상당 소장/정종택(상명대학교 석좌교수/조상혜(법무법인 청초 변호사/최문순(강원도지사/최현섭(전 강원대학교 총장/황수경(여리이도서관 꿈꾸는교실 관장)



현장에서 배우는 어린이 건축 교실



글 토포 토이카 | 그림 페렌크 B. 레코스 | 사진 하이게 오센코프  
옮긴이 박종대 | 감수 임지택  
32쪽 | 값 22,000원

# 우리 집을 지어요!

## 책으로 하는 생생한 체험 학습

**위험하지만 배울 것이 많은 건축 현장!**

호기심 많은 주인공 '팀'은 그곳에서 무엇을 보고, 듣고, 느꼈을까요?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친절하고 설명, 흥미로운 그림과 사진을 통해  
집터를 닦는 것부터 정원을 만들기까지 건축의 모든 것을 배웁니다.



"어린이를 위한 많은 책으로 건축을 이렇게 쉽게 알려 준다는 것이 신기할 정도다.  
사실 어린이뿐만 아니라, 청소년이 읽어도 좋을 책이다. 이 책을 통해, 예술과 기술의  
이상적인 결합을 추구하며 만들어지는 건축의 세계에 관심을 갖는  
어린이가 많아지길 바란다." - 건축가 김승희

반짝반짝 우리집



삼짇날 해 봐요~!

꿈꾸는 그림책



**선 따라 걷는 아이**

크리스틴 베릴 글 | 알렉 모르코스 그림 | 김노벨라 옮김 | 30쪽 | 값 11,000원

"혼자 상상하며 노는 것도 좋지만 우리 함께 놀자!" 하고 아이에게  
촉촉이 어른들에게는 "선 밖에도 멋진 삶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깨우치는 책  
단순한 점, 선, 면에 다채로운 색깔을 얹어 모양과 색채의 차이가 된  
그림들이 아이의 풍부한 생각과 감정을 보여 준다.



**틱톡, 일어나세요!**

앤드리어 어텐 글·그림 | 서예진 옮김 | 32쪽 | 값 11,000원

사계가 바뀌면 시절, 아이들은 학교 갈 시간을 어떻게 했을까?  
역사책에서 화글게 여간 사람들에게 대한 이야기,  
세상이 바뀌면서 사라져 버린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 보자.

- 국제독서협회 추천 도서
- 미국 어린이도서관협회 우수 도서 수상
- 영국스튜어트대학교 선정 올해의 어린이 책
- 아이리쉬 호러스 글상 수상

꿈교 출판사는 자연과 사람, 사람이 자연이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경기도 파주시 교정동 507-7 / 전화 031-995-1628 / 팩스 031-995-1626 / 인터넷서점 <http://calle.stamps.net/saloom.com>

## 초등학교 3학년 국어 교과서 수록



형밖에 모르는 우리 엄마,  
나한테는 만날 형이 쓰던 헌것만 물려주고  
형하고 싸우면 나만 야단치고.....

**엄마, 나한테도 관심 좀 가져주면 안 돼?**

김향아 글 | 이덕화 그림 | 값 10,000원



신비로운 이야기로 만나는  
우리 민족 문화의 대표 상징, 태극기!

**안녕, 태극기!**

알쏭달쏭 복잡한 태극기,  
이야기로 만나면 어렵지 않아요!

박윤규 글 | 백대승 그림 | 한철호 감수 | 값 11,000원  
KBS 국어능력시험 선정도서



어린이들이 꼭 알아야 할  
소중한 우리 문화,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속에 깃든 우리 민족의  
삶과 문화를 만나 보세요!

박윤규 글 | 한병호 그림 | 진용선 감수 | 값 12,000원  
CD 포함(구연 동화, 교과서 속 아리랑 수록)  
학교도서관저널 추천도서 | KBS 국어능력시험 선정도서



푸른숲주니어